주체 90 7.4~7.10(매주 수요일 발행)

6.15 주간



2 호

차 례

표지 1

김정일장군님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3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명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명제중에서 12

명 언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관해 하신 말씀 13

대 담

조국통일의 구성 15

민족대단결의 경륜을 펼치시어 16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 관철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통일에 나서자 18

[인터넷 신문기사] **김정일**위원장 남녘방문 열망 19

[성명] 각국 단체들과 인사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 지지 20

[성명]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 21

외세와의 <공조>를 걷어 치워야 한다 22

[인터넷 신문기사] 남북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 추진 중 23

수원지역 청년, 학생 통일대토론회보고 24

[칼럼] 통일의 3 원칙과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 25

단죄 · 규탄

반통일세력에 대한 서울서부지역 통일연대 규탄 성명서 27

국가보안법 철폐

손준혁군과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을 당장 석방하라 28

뉴 스 2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 년 8 월 4 일

김 정 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 년 8 월 4 일

우리 인민은 멀지 않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 주신 력사적인 조국해방 52 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에 즈음하여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그날로부터 반세기를 이어 오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불면불휴의 로고와 쌓아 올리신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돌이켜 보고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위업이였으며 절절한 념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의 분렬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을 무엇보다도 가슴 아파하시였으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 주시려고 생의 마지막 시각까지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뜻을 이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무이고 의리이며 우리 세대에 맡겨 진 성스러운 민족적임무이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과 장애가 가로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여야 하며 조국과 민족앞에 지닌 우리 세대의 책임과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시고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탁월한 사상과 령도로 조국통일위업을 개척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으며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 놓으시였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는 제 2 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외세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됨으로써 생겨난 문제이다. 나라가 북과 남으로 갈라 진 지난 반세기의 력사는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의 상반되는 두 로선의 첨예한 투쟁의 력사이며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력량의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조국통일운동을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고 변함없이 견지하신 조국통일로선은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민족자주의 로선이며 통일조국의 부강발전과 전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참다운 애국애족의 로선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남조선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며 갈라 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수천년동안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 져서는 민족적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날수 없다.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통일로선은 우리 민족의 근본리익과 요구, 일치한 념원과 지향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이 계속되는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속에서도 시종일관 통일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이끌어 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반부를 조국통일의 보루로 굳건히 다지시는 한편 북반부인민들이 한시도 남녘의 형제들을 잊지 않고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시였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도전과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통일운동을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시였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소집하시여 사대매국세력의 민족분렬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게 하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고 우리 나라에서 하나의 조선이냐 《두개 조선》이냐 하는 두 로선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날카롭게 벌어 졌던 시기에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온 겨레를 불러 일으키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며 격페상태에 있던 북과 남사이에 대화와 협상의 길을 열고 북남사이에 공동성명과 합의서들을 채택하게 하여 조국통일운동의 새 국면을 열어 놓으신 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문제를 두고 어느 하루도 심려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며 어느 한때도 편히 쉬신 날이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수령님께서 벌리신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의 조국통일로선의 정당성이 세계 각국의 정계, 사회계, 언론계에 널리 알려 지게 되였으며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국제적관심이 높아 지고 우리의 조국통일운동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와 련대성이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로선을 튼튼히 틀어 쥐시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를 다 바쳐오신 위대한 공적으로 하여 조국통일운동은 분렬주의세력의 방해책동을 물리치면서 계속 발전하였으며 불패의 력량으로 확대강화되였다.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열망은 날을 따라 더욱 높아 가고 있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조국통일운동에 떨쳐 나서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운동이 오늘과 같이 위력한 전 민족적운동으로 확대강화되고 세계적인 관심과 진보적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 전진하고 있는것은 분렬로선에 대한 통일로선의 빛나는 승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조국통일 3 대헌장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견지하여야 할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 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은 온 민족의 단합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이다. 이 강령에는 민족대단결의 목표와 리념적기초, 단결의 원칙과 방도가 전면적으로 명시되여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설계도이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에는 나라의 통일을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서로 용납하는 기초우에서 가장 공정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기본방도가 제시되여 있다.

조국통일 3 대원칙과 전 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조국통일 3 대원칙과 전 민족대단결 10 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주체사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과정에 이룩하신 고귀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들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조국통일의 3 대헌장이다. 조국통일 3 대헌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는 민족자주정신으로 일관되여 있으며 북과 남의 화해와 전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는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구현하고 있다. 3대헌장은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하여 온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과 통일을 갈망하는 온 민족의 한결 같은 지향에 맞게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도를 밝혀 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 3 대헌장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뚜렷한 목표와 방향,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숙망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수 있게 되였다. 조국통일 3 대헌장이야말로 조국통일의 기치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투쟁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온 민족을 묶어 세우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시고 더욱 강화하시였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그 위력은 민족대단결에 있다. 주체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련될 때 조국통일위업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적단결의 기초로 삼으시고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키는것을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내세우시였으며 넓은 도량과 아량 있는 포옹력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수령님께서는 《힘 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라는 민족단합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각계각층의 조선사람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통일위업에 기여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민족대단결의 사상과 리념, 수령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인간애와 민족애는 각계각층의 동포들을 민족적단합과 조국통일의 길에 과감히 나서게 한 힘의 원천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 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일력량을 묶어 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경험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심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동포들을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조직적으로 묶어세우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되였다. 조국통일운동이 전 민족적인 운동으로 확대발전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민족의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 진 환경속에서 북과 남, 해외동포들을 망라한 범민족대회가 열리고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대표하는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탄생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이룩된 중요한 성과이다.

오늘 통일애국의 주체적력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고 더욱 굳게 결속되고 있으며 사대매국적인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 올리신 업적은 우리 인민과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바치신 평생의 로고와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쌓으신 위대한 업적은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의지이다.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국토량단과 민족의 분렬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가로 막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자라 나는 새 세대들도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민족적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 지게 될수 있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무너지고 압박 받던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독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때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있는것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수치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필생의 뜻이였고 민족의 사활적요구인 조국통일위업을 반드시 성취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과업이다. 만난을 무릅쓰고 조국을 통일하여 민족분렬의 비극의 력사, 치욕의 력사를 끝장내야 한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 주어야 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더욱 빛내여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생을 바쳐 조국통일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며 조국통일의 주체적로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 대헌장은 통일을 념원하는 우리 민족모두가 받들고 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구체적인 방법은 달라 질수 있어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립장에서는 변화가 있을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 지든 조국통일 3 대헌장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여야 한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데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리는것은 나라의 자주독립과 부강발전을 보장하며 민족의 륭성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원칙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 기간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고 빛나게 구현해 나가심으로써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고 조국땅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 세우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무궁무진한 힘과 재능, 불굴의 기상을 온 세계에 높이 떨치게 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로선과 조국통일헌장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한 원칙적요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일관되여 있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민족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데서 기본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 쥐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주적으로 개척하여 나갈 권리가 있다. 민족의 자주권은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고 침해할수 없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이룩해 나가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민족의 모든 성원들이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대주의와 외세의 존사상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은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상적독소이다. 사대와 외세의존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민족수난의 오랜 력사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뼈 아프게 체험한 심각한 교훈이다. 우리 나라가 일제에게 먹히우게 된것도,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하고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된것도 결국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큰 나라를 숭배하고 섬기는 사대주의때문이였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숭미사대주의에 빠진 남조선의 력대 집권자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미국의 침략정책을 추종하여 반통일적인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여 왔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 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

는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것이나 다름 없는 어리석은짓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우리는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에 간섭하여 자기의 침략적, 지배주의적야망을 실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라와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룩해 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온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하여야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수 있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은 민족내부의 계급적모순이나 제도상의 대립을 해결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민족적위업이다. 민족을 떠난 계급이나 계층이 있을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실현되지 않고는 민족성원들의 자주성도 보장될수 없다. 조국통일이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나서고 있는 오늘 어느 계급이나 계층도 자기의 리해관계를 민족공동의 리익보다 앞세워서는 안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다. 북과 남이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에 내세우고 다같이 조국통일을 지향해 나선다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할수 있다.

조국애와 민족애는 모든 민족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며 민족적단결의 사상적기초이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민족적특질이다. 조선민족의 피와 넋을 지닌 사람이라면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 나가야 한다. 오늘 조선사람에게 있어서 참다운 인생의 가치와 보람은 자신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결합시키고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데 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다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대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을 합쳐 나갈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민족적량심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상과 신앙을 가졌건 또 그가 자본가이건 군장성이건 집권상층에 있건 관계하지 않고 함께 손 잡고 나갈것이다. 우리는 지난날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민족의 편에 돌아 선다면 과거를 백지화하고 관용으로 대하며 그와 단결할것이다.

민족대단결을 위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애국, 애족, 애민의 광폭정치이다. 조국의 통일독립과 부강발전을 위한 투쟁의 전 과정에서 변함없이 광폭정치를 관철하여 나가려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다.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민족대단결로선은 조국광복을 위한 투쟁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투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오랜 실천과정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우리는 애국을 지향하여 통일위업에 나서는 모든 정당, 단체,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 신앙을 존중하고 그들과 련합해나감으로써 민족앞에 지닌 의무와 신의를 지킬것이다.

조국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려는것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이며 우리 당의 변함없는 로선이다.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를 놓고 동족끼리 서로 싸워야 할 근거가 없다. 북과 남사이에 존재하는 사상

과 제도의 차이도 무력행사의 조건으로 되지 않는다. 사상과 제도는 강요한다고 하여 받아 들이는것이 아니며 강압적방법으로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없앨수 없다.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이다. 조선의 평화적통일은 우리 민족의 요구일뿐 아니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이기도 하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누구나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평화를 보장할수 없으며 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책동으로 말미암아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해결될수 있다. 우리 공화국과 미국은 아직도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놓여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전쟁의 위험은 가셔 지지 않고 있다.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담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이미 세상에 공포된 북남불가침에 관한 합의를 재확인하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지금 미국은 말로는 《랭전의 종식》과 《긴장완화》에 대하여 떠들면서도 구태의연하게 《힘의 정책》에 매달려 끊임 없는 군사연습과 침략책동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남조선통치배들의 전쟁도발소동을 적극 부추기고 있다. 군사적위협이나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것은 부질없는 시도이며 위험한 행동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킬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통치배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나라와 인민의 안전을 보위하는것은 우리의 응당한 자위적조치이다. 제국주의의 호전계층들은 무력으로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시험해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위협과 도발로 우리 인민을 놀래우거나 굴복시켜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분별 없는 행동은 파국적후과를 초래할수 있는 위험천만한 모험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시종일관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도는 련방제방식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다.

우리 민족은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루속히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을 바라고 있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세워 진지도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어느 한쪽의 제도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면 통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분렬을 심화시키고 돌이킬수 없는 민족적재난을 가져 오게 될것이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조국통일을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다.

련방제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리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련방제통일방식은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감돌고 있는 전쟁위험을 없애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도 이바지하게 될것이다.

련방제통일이 이루어 지면 우리 민족은 전국적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대단합을 이룩하게 될것이며 우리 나라는 자주적이고 평화애호적이며 중립적인 민족통일국가로 될것이다. 통일된 련방국가는 주변나라들의 리해관계도 침해하지 않을것이며 그 나라들에 위협으로도 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 대헌장을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갈것이다.

3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수 있다.

오늘 조국통일의 기운은 전례없이 고조되고 있으나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첨예하다. 민족의 운명도 나라의 통일도 안중에 없는 남조선의 현 당국자들은 저들의 권력지반이 밑뿌리채 뒤흔들리게 되자 출로를 북남사이의 긴장격화와 대결에서 찾으려고 하면서 북남관계를 극한적인 적대관계로 전변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현 《정권》이 출현한 이후 북과 남사이에는 화해가 아니라 대결이 격화되고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위험이 짙어 가고 있다. 북남관계를 일찌기 없었던 최악의 상태로 몰아 넣은것은 남조선의 현 당국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반통일적, 매국배족적죄행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 나가자면 무엇보다도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에 의존하고 외세와 《공조》할것이 아니라 민족자주의 립장에서 동족과 힘을 합쳐 외세를 반대배격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민족자주냐 외세의존이냐 하는것은 통일과 분렬,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다. 누구도 민족을 등지고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외면하면서 외세에 의존하여 그와 《공조》하는 길로 나간다면 민족의 버림을 받게 될것이며 력사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민족자주의 립장, 애국애족의 립장에 설 때에만 북남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정책전환을 하여 민족을 위하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돌아 서야 하며 동족과 손을 잡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가 해소되여야 군사적대결상태도 가셔 질수 있고 나아가서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실현될수 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참된 동족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반북대결정책을 련북화해정책으로 바꾸어야 하며 북남사이에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정치적대결상태와 함께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는 동족사이에 불신과 오해를 가져 오며 서로 신뢰하고 화해할수 없게 할뿐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적참화를 빚어 내게 할수 있다.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지 않고는 북남관계의 개선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도 기대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에서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 실지로 존재하는것은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위협이다.

조선반도에서 북침위협이 없으면 북남사이의 군사적대결상태도 해소될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킬것이 아니라 완화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무력증강과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며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남조선에서 사회정치생활이 민주화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파쑈통치가 실시되는 조건에서는 북남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할수 없으며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자유로운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더우기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과 남의 인민들과 각계인사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며 남조선의 통일애국력량을 탄압하는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민족반통일악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언제 가도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할수 없으며 북남사이의 접촉도 교류도 이루어 질수 없다. 민족의 분단과 더불어 시작된 조국통일운동의 간고한 력사는 남조선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않는 한 북남관계에서 그 어떤 진전도 가져 올수 없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인 통일민주력량이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탄압 당하고 북남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민주화의 과제를 미룰수 없는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온 민족에게 해를 주는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철페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조국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가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되여야 한다.

앞으로 남조선당국자들이 온 민족의 기대에 맞게 오늘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에서 벗어 나 실지행동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면 우리는 그들과 아무 때나 만나 민족의 운명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협상할것이며 조국통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지켜 볼것이다.

조선문제를 옳게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유관국가들도 조선의 통일을 돕는 성실한 립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것이다. 유관국가들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통일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며 우리 민족이 조국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은 조선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자기가 서명한 공약과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하며 더 이상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을 백년숙적으로 보려 하지 않으며 조미관계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이 랭전시대의 낡은 관념에서 벗어 나 힘의 립장에서 조선문제를 대하지 않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조미관계도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좋게 발전할것이다.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은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버려야 하며 조선의 분렬을 부추기고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나라의 린방인 일본을 우호적으로 대할것이며 비정상적인 조일관계도 개선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조선이 통일되면 우리 조국은 7천만의 인구를 가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세계무대에 당당히 등장할것이며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존엄 있는 위대한 민족으로 자랑 떨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림으로써 7천만 겨레가 통일된 조국강토에서 행복하게 살아 갈 력사의 그날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히신 민족통일전선에 관한 명제중에서

『오늘 우리 나라에서 민족통일전선을 굳게 형성하는 것은 매우 절박한 과업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통일전선을 튼튼히 형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혁명역량을 굳게 묶어세우는가 못세우는가, 반혁명세력을 철저히 고립시키는가 못시키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우리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각계각층 군중을 민주주의적 대중단체들에 망라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민족통일전선의 기초를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무엇보다 먼저 제국주의와 나라의 식민지화를 반대하고 침략과 전쟁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통일전선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음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의 완전독립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전선은 반드시 우리 나라의 실정과 전체 인민의 의사에 맞는 민주주의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통일전선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을 굳게 결성하기 위하여 적극 힘써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적으로 조국을 통일할데 관해 하신 말씀

우리의 투쟁은 바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적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며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 통일조국의 자주적 발전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해 나가는가 하는데 따라 민족의 운명이 됩니다.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입니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기본은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는 누구도 살아갈수 없으며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민족의 어느 계급, 계층도 자기운명을 바로 개척해 나갈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민족국가를 단위로하여 살아가고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조건에서 나라와 민족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실현될수 없다.

자기나라와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신이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자주적 권리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이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와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고 난관앞에서 동요하거나 주저앉아 자기의 신념과 자신이 택한 길에서 물러서게 되면 다시는 일어설수 없게 됩니다.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나라와 민족의 제일생명입니다. 정권이 있어도 자주성이 없는 나라는 사실상 자주독립국가라고 말할수 없으며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식민지적예속과 노예적굴종의 처지를 면할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정치적 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독립과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행복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 기초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하고 자주적으로 살아나갈수 있으며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국방에서의 자위를 확고히 보장하고 인민들에게 넉넉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하여 줄수 있습니다.

국방에서 자위는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의 군사적 담보입니다.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관철하여야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물리치고 나라의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립을 고수할수 있으며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전을 보위할수 있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하여 민족이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입니다.

수천년동안 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둘로 갈라져서는 민족적 불행과 재난을 면할수 없으며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통일만이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며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 나갈수 있는 유일하게 정당한 길이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고 있는 국토양단과 민족의 분열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될것이며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지게 될 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북과 남의 화합과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서 구원하고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 주어야하며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고 더욱 빛내어 나가야 한다.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구현하는 여기에 조국통일위업을 우리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성과적으로 실현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

나라의 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외세에 빼앗긴 민족의 자주권을 도로찾는 조국통일문제를 외세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외세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

전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조국통일의 직접적 담당자는 우리 민족자신이며 그 누구도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을 대신할수 없다.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뒤로 미루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내세우며 그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한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해도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 공통성보다 더 클수 없다.
자기조국과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모두다 사상과 이념, 신앙과 정견, 계급과 계층의 차이에 관계없이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야한다.

연방제방식의 통일은 어느 한쪽의 우위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않는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통일방도이다.

북과 남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부터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켜야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해 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것은 수령님의 유훈이며 온 민족이 통일된 조국에서 화목하게 잘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수령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일이 있어도 수령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워야합니다.

- 구국의 소리 6 월 4 째주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중에서

조국통일의 구성

임현아 : 오늘 세계 진보적인류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시기 위해 정력적으로 활동하시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자리를 같이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릴께요.

윤정원 : 세인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한반도에서 조국통일의 역사적국면이 열렸다고 하면서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하고 있죠.

스웨덴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토마스 프렌스워는 **김정일**동지께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위한 *** 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오랜기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셔서 통일을 앞당겨올수 있는 위대한 결실을 가져오셨다. 최근 수년간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중의 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들은 **김정일**동지의 영도밑에 이룩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조선통일지지 인도위원회 위원장 브렌지모하는 **김정일**각하께서는 비상한 조직력과 영도적 수완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을 이룩하셨으며 조국통일을 앞당길수 있는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셨다. **김정일**각하의 영도밑에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조선민중의 투쟁에서는 역사적 사변이 일어났다. 우리는 그분의 현명하고 빛나는 영도밑에 조선민중의 숙원인 한반도의 통일이 그 어떤 외세의 간섭없이 실현되기를 확신하면서 미군이 이남땅에서 당장 철수할 것을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임현아 :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노선이 가장 공명정대한 것으로서 오늘 세인들의 찬사를 받고 있죠.

윤정원 :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주석님과 위대한 영도자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노선에 대한 찬탄의 목소리는 미국땅에서도 높이 울려나오고 있어요.

지난 4 월 19 일 미국노동자세계당 기관지 위클리 월드지는 통일에 대한 북조선의 ** 의 제하의 미국노동자세계당 서기국장인 베오드르 브리스월드가 쓴 글이 발표됐어요.

그는 글에서 지난시기 조선은 미국의 전략 때문에 갖은 고통을 겪는 나라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나라는 반세기이상 갈라져있다. 1 년전 북과 남의 조선민족은 분열을 종식시키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같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50 여년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난해 6 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사회주의 북조선에서 상봉하셨다. 서방언론들은 김대중에 대한 북조선의 환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북과 남 사이의 긴장이 점차 완화되는 듯싶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모든 진전의 징조들이 쇠퇴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미국정부는 모든 과정을 뒤집어 놓았으며 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시대를 *** 하고 있다. 미국민중은 북조선에 대하여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도자께서는 통일노선을 구체적으로 밝히셨다. 북조선의 통일노선은 일관하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시종일관 자주성을 견지하여왔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북과 남에 존재하고 있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무력통일의 근거로 될 수 없으며 북과 남이 서로 싸우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밖에 이룰 것이 없고 제국주의자들만 이득을 볼것이라고 밝히셨다.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 조선민중은 전쟁과 분열의 상처를 그쯘히 가실수 있다. 그러자면 조선민중뿐 아니라 미국국민들속에서도 정부가 이남에 대한 지배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는 위력한 운동이 벌어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임현아 : 네, 민족자주의 원칙은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 아니예요. 그래서 지난 1 월 10 일 평양에서 열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2001년대회의 호소문을 지지해서 세계 여러 기구와 단체들에서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윤정원 : 세인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대회의 호소에 지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페루위원회는 성명에서 대회의 호소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반목과 대결로부터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관계로 전변되고 있으며 통일의 새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변은 조선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이다. 우리는 전체조선민중이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며 연방제를 하루빨리 실현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 우리는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이 되는 올해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6.15-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 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일대고조를 이룩해 나가며 21세기의 첫광복절을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으로 빛나

게 장식할데 관한 대회의 호소문에 적극 지지찬동한다. 조선로동당의 올바른 민족자주, 민족대단결노선이 있고 민족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선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밝아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임현아 : 정말 옳은 말인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두분 얘기 들으면서 다시한번 생각한게 있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셨기에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 통일조국의 미래는 다 낙관되는 거다

네, 그래요. 위대한 장군님영도따라 자주통일 향해서 과감히 진군하자구요.

- 구국의 소리 6월 4째주
[새 세기 태양 누리에 비친다] 중에서

민족대단결의 경륜을 펼치시어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 남과 북 사이에는 여러갈래의 대화와 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구요.

아참, 시드니 올림픽때에 남북참가 대표단이 공동입장해서 얼마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까. 우와- 그때 그장면을 보면서 통일된 우리 나라를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이번에는 민족대단결의 경륜을 펼치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업적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임기수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임기수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오늘 우리 7 천만 겨레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발표 1 돌을 계기로 조국통일위업에 불멸의 위업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경모와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며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가속화할 굳센 의지를 가다듬고 있잖아요. 이 벅찬 현실을 놓고 우리 각계애국민중 모두가 가슴 뜨겁게 생각하게 되는 건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마련하신 **김정일**영도자님의 불멸의 업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 얘기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임기수 아나운서와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기수 :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1년간 남북사이의 관계에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었는데요. 남북사이에 *** 대표단들의 상호왕래가 분단 55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활발히 진행되었고 시드니올림픽 경기때에는 남북참가대표단들이 공동입장해서 세인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건 다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의 ** 빛나는 ** 입니다.

사회자 :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민족대단결의 경륜을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에 대해 얘기하려면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분께서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을 제시하신데 관해 얘기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기수 :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역사적인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50 돌을 즈음해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저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에서 천명되었는데요. 그분께서 발표하신 저작을 접하자 우리 각계애국민중은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을 통일의 **,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으로 적극 지지찬동하며 **높이 받들어 조국통일운동을 가속화해 나갈 새로운 지향적 열의에 넘쳐 있었어요.

사회자 : 그럼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실까요.

임기수 : 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저작에서 밝히신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의 첫째 조항은 민족의 대단결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해야 민족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하고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대외관계를 발전시킬수 있다고 하셨죠. 그래서 민족자주원칙은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전민족대단결의 기초의 기초라는 걸, 그리고 민족자주의 원칙은 애국애족과 매국배족, 통일노선과 분열노선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사회자 : 애국애족과 매국배족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민족자주와 외세의존은 양립될 수없죠.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해서 전민족대단결을 이룩할때에만 우리 민족이 자기운동에서 참다운 주인이 될 수 있고 조국통일과 민족번영의 위대한 추진력으로 결정적 역량으로 될 수 있죠. 민족대단결5대방침의 둘째 조항은 무엇인가요.

임기수 :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의 둘째 조항인대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작에서 우리

민족은 자기조국과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며 민족의 넋을 소중히 간직하고 이어 나가는 민족성이 강한 민족이라는 데 대해 말해주시면서 남과 북 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 공통성이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작에서 과거에는 비록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었어도 오늘에 와서 진심으로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고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손잡고 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자 :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면 집권상층이나 대자본가, 군장성들, **들을 막론하고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단합할 것이라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이 가슴 뜨겁게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의 셋째 조항에 대해 얘기해 주실까요.

임기수 :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려면 남북사이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요. 남북사이의 관계를 불신과 대결의 관계에서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전환시키는 건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죠.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부인하면 대결을 피할수 없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위에서 화합을 이룩하고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면서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하셨죠.

사회자 : 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저작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이 땅의 당국자들이 정책전환을 해서 반북대결정책을 연북화해정책으로 바꾼다면 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그럼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의 넷째 조항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임기수 :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저작에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민족반역자들, 반통일세력을 받대해서 투쟁해야한다고 가르치셨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주된 장애물이죠. 외세에 의해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해서 오늘까지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죠. 오늘도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지향을 억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죠. 외세의 지배와 간섭, 안팎의 분열주의 세력을 반대해 투쟁하지 않고서는 남과 북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습니다.

사회자 :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온 민족이 단결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함께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정책,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그럼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의 마지막 조항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임기수 : 네,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이 서로 왕래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발전시키고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이 민족대단결 5 대방침의 다섯번째 조항인데요. 동포들 사이의 왕래와 접촉, 대화와 연대연합을 널리 실현하는 것은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죠. 민족일부에 비록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에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모든 동포들이 자유로이 왕래하고 접촉하며 대화를 하고 연대연합을 강화해 나가면 서로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민족공동의 목표를 위해 뜻과 힘을 합칠수 있죠.

사회자 : 남과 북 사이의 대화는 민족단합을 위한 대화로,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임기수 : 네, 누구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나라의 분열을 고정화하는데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지 말아야하죠. 남북대화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고 남북사이의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모든 걸 조국통일의 원칙에서 진행되어야 하고 소수 당국자들과 특정한 계급, 계층의 독점물로 되어서는 안되고 각당, 각파, 각층의 의사를 모을수 있는 폭넓은 대화로 전민족적인 대화로 되어야 하죠.

사회자 :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밝히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누구나 다 접수할수 있는 매우 공명정대한 방침인데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온 민족의 투쟁이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들어선 엄숙하고도 역사적인 시기에 천명된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경륜인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받아안은건 우리 민중과 온 겨레의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수 없죠. 오늘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 있어도 우리 민중은 민족대단결의 구심점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주위에 하나로 똘똘 뭉쳐서 그분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실현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고야 말것입니다. 임기수씨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기수 : 감사합니다.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통일에 나서자

세기를 이어오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업은 지금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오늘의 현실은 온 민족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조국통일운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국통일위업은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이룩해야 할 전민족적인 위업이다.

이것은 어느 특정한 당파나 계급, 계층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투쟁역사가 이를 실증해 준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디사는 누구이든 애국애족의 대오에 동참해야 한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세기적인 숙망이다.

우리 민족안에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분단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한줌도 안되는 매국배족의 무리뿐이다.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

뭉친 힘은 실로 거대하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자본가, 종교인, 등 사회의 각이한 계층은 소속도 다르고 처지도 같지 않다.



그러나 다같이 한 핏줄을 이어 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통일의 주인들이다.

소속과 처지가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거나 따돌리면 힘을 합칠 수 없다.

소속과 처지의 차이는 연대,연합의 장애로 될 수 없다.

6.15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어 이행되고 있는 오늘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연대, 연합해야 한다.

단결은 곧 힘이다.

통일은 민족의 단결된 힘으로만 가능하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외세의 힘을 빌어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확립한 나라가 없었다.

외세는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세력이다.

지나온 반세기의 분단역사는 외세와 공조해서 얻을 것이란 민족적 불행과 고통, 재난 뿐이라는 것을 실증하였다.

제민족이 제일이다.

어려울 때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도 제민족이다.

그 어떤 민족도 제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시대와 역사의 부름을 외면하지 말고 주저없이 애국애족의 대오에 합류해야 한다.

통일운동대오에는 남과 북이 따로 없고 당국과 민간, 여야가 따로 없다.

계급, 계층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민족의 이익 속에 계급, 계층, 개별적 사람들의 이익도 있다.

남북공동선언은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온 민족이 힘을 합쳐야 더욱 철저히 이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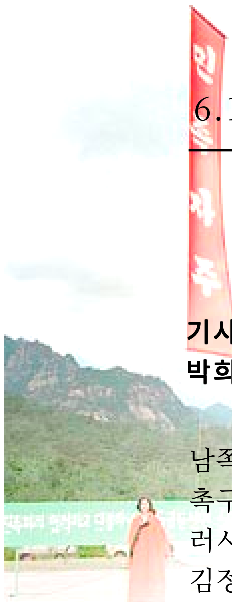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걸음을 맞추고 소속과 처지의 차이를 초월하여 화해하고 협력하고 단합하는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한다.

별다른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다.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하려는 자각을 가지고 조국통일위업에 몸을 내대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이다.

남북,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노 선 일>



김정일 위원장 남녘방문 열망

기사 출처 : http://www.tongilnews.com
박희진 기자(hjpark@tongilnews.com)

남쪽의 각계 인사들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서울 방문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밝혀 관심이 주목된다.

남북관계의 최대 화두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이다. 시기적으로는 6.15와 8.15를 전후한 시기에 답방을 예상했으나 이미 정상회담 1주년을 훌쩍 넘기고, 이제는 올해안 성사 가능성을 위해 분주히 노력중이다.

특히 최근 북미대화 재개 움직임과 금강산 사업의 재가동이 준비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남북관계의 개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다.

김대중 대통령이 6.15를 전후한 시기에 8차례에 걸쳐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촉구했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재도 지난달 31일 알렉산더 호주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25일에는 전두환 전대통령마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이므로 약속을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처럼 남쪽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조속히 성사시키고자 하는 의지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2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밝힌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의 서울답방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발언은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이타르타스통신사 기자와의 인터뷰를 보도한 러시아 소리방송에 의하면 `제2차 북남 수뇌자 상봉이 반드시 이뤄지나 그 날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고 26일 연합뉴스가 보도하였다.

방송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제2차 북남 수뇌자 상봉이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밝히고, `김정일 영도자의 서울방문에 앞서 북측의 고위대표가 앞서 방문할 것이나 그 날짜와 누가 가겠는지는 아직 짐작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미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 때에도 `서울답방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외무성 대변인의 발언 역시 같은 맥락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적어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시기인데 이는 남한과 북한이 조율할 문제로 아직 여기까지 전개되고 있지는 못한 것이 현실로 보인다.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신건 국가정보원장 및 정부 고위 관계자도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은 확신하나, 관건은 `언제 할 것인지`라고 밝혔다. 이는 아직 시기에 관한 남북의 조율이 없었음을 반증한다.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2차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가 지난 1차 정상회담과 같이 양 정상이 만나는데서 그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제2차 북남 수뇌자 상봉이 개최되면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 놓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북한이 2차정상회담에 거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여 주었다.

이를 위해 북미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한 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환적 조치를 내오고자 하는 북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겠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에 앞서 반드시 `고위대표`를 사전 방문시키겠다는 점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따라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답방 문제의 수순은 2차 정상회담의 의제 풀이가 가능한 조건을 형성하고, 고위대표자의 사전답방이 이뤄진 뒤 성사 가능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2001-06-27)



조국통일 위업 국제지지성명

각국 단체들과 인사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 지지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 인디아위원회가 6월 2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때로부터 48년이 되여 오지만 오늘까지도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키고 있을뿐아니라 군사인원들을 증강하고 무기의 현대화를 다그치면서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우리는 미군과 핵무기의 남조선주둔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실현의 기본장애물이며 조선반도와 아시아, 세계의 평화보장을 저해하는 화근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과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의 조선의 내정에 대한 간섭과 공화국적대시정책을 반대한다.

이에 앞서 6월 22일 우간다철도로동자련맹 총서기 파트릭크 카타부링기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제1주적으로 규정하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 전쟁장비들을 증강하는 한편 침략적인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려 놓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은 조선반도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 우간다철도로동자련맹 전체 성원들은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버리고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저들의 무력을 지체없이 철수할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 내고 조선문제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끝장내며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한편 파키스탄이슬람교련맹(쥬네조파) 총서기 이크발 아흐메드 한과 모잠비끄 제인민간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총서기 데오린다 구에지마니도 6월 15일에 발표한 담화들에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끝)

민족통신 7/3/2001



통일위업에 국제적 지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지지

(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마다가스까르 그리스도교민주련맹이 6월 21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미국 부쉬행정부가 51년전 조선전쟁의 력사적교훈을 망각하지 말고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은 사대와 외세의존정책을 더는 추구하지 말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고 있는 북남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비롯한 사회주의조선의 모든 통일방안들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확언하면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같은 날 발표한 담화에서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 안헬 까스뜨로 라바렐요는 지금 미제는 1950년대의 참패를 망각하고 조선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책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제는 새 세기에 들어 와서도 조미기본합의문을 성실히 리행하지 않고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각종 살인무기와 무장인원을 증강하고 새 전쟁 도발책동을 벌리는 한편 있지도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의 <위협>을 걸고 <미싸일방위>체계수립을 다그치고 있다.

또한 미행정부는 어리석게도 조미기본합의문리행이 조선에 의하여 지연되고 있는듯이 오도하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계속한다면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침략의 아성을 송두리채 없애 버릴것이다.

한편 6월 11일과 23일 로므니아와 프랑스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이 있었다.(끝)

민족통신 7/2/2001

외세공조 배격, 6.15 관철 강조

외세와의 <공조>를 걷어 치워야 한다

(평양 6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호 <민주조선>은 <외세와의 공조를 걷어 치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 마련된 6. 15북남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민족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해내외 동포들의 일치한 지향이며 의사이다. 겨레의 이 뜨거운 지향과 열망에 떠받들려 6. 15－8. 15민족통일촉진운동이 북과 남, 해외에서 힘 있게 벌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세의 흐름에 배치되게 남조선에서는 외세와의 <공조>가 계속 추진되고 있다.

남조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세와의 <공조>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보조를 맞추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시대착오적인 랭전정책, <힘>의 정책이다. 그것은 부쉬행정부가 집권하기 바쁘게 조미대화를 중단시키고 <정책재검토>를 운운하면서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위협>, <미싸일위협>을 퍼뜨리며 반공화국압살소동에 열을 올린데서도 명백히 드러 났다.

미국의 현 행정부는 최근에 조건부 없는 <대화재개>를 표명하면서도 대화에서 우리의 핵문제, 미싸일문제, 지어는 상용무력축감문제까지 론의할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공포하였다.

우리를 무장해제시켜 놓고 손 쉽게 집어 삼키려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이처럼 교활하고 음흉하게 추진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남조선정계의 여러 인물들이 미국에 련이어 날아 가 모의를 벌리고 있다.

미국의 국무성, 국방성의 중추적인 인물들도 남조선에 쓸어 들어 대조선정책을 설명하는 놀음을 벌리고 있다. 이러한 속에서 미국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침략무력을 늘이면서 북침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다.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남조선군부도 신형전쟁장비들을 구입하면서 북침전쟁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공조>가 실천에 옮겨 지고 있다. 이것은 6. 15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며 그 리행에 제동을 거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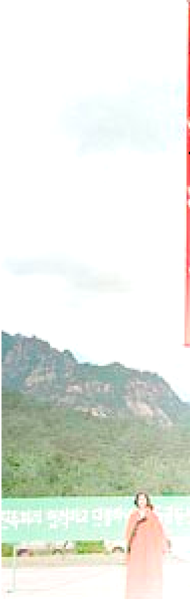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날뛰는 미국과의 <공조>가 북과 남 사이의 무력대결과 충돌을 불러 온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북과 남이 무력대결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이고 거기에서 어부지리를 얻는 것은 외세이다. 20세기 50년대에 한차례의 전쟁을 겪은 우리 민족을 또 다시 새 전쟁, 핵전쟁의 재난속에 빠뜨릴 수 있는 외세와의 <공조>가 더 이상 추진되여서는 안된다.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보조를 맞추는것은 남의 정신으로 살고 남의 풍에 노는 가련한 정치머슴행위이다. 민족은 외세와의 <공조>에 매달려 민족적 재난을 몰아 오는 자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민족에게 불행을 안겨 주는 미국과의 <공조>를 걷어 치워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다.

미국은 <해방자>도 <벗>도 <평화의 사도>도 아니다. 우리 나라를 분렬시키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미국이며 우리 민족을 3년동안이나 전쟁의 참화속에 빠뜨리고 또다시 새전쟁의 불집을



일으키려고 날뛰고 있는것도 미국이다. 미국의 개입과 간섭이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은 분렬되지도 않았을것이고 전쟁의 재난을 겪지도 않았을것이며 통일문제도 이미전에 해결되였을것이다. 미국이야 말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그렇기때문에 해내외동포들이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거족적인 반미투쟁에 떨쳐 나서고 있다. 미국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이 거족적인 반미투쟁대오에 합류해 나서야 한다.

민족을 등지고 외세에 의존할것이 아니라 민족을 위하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서야 한다.

외세는 결코 한 피줄을 이은 동족보다 가까울수 없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단일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문화와 력사를 창조해 온 슬기롭고 재능 있는 민족이다. 민족을 믿고 민족에 의거하는 민족자주의 립장에 확고히 선다면 외세가 그 어떤 압력을 가해도 두려울것이 없다. 비굴하게 외세의 눈치를 살피며 비위를 맞추지 말고 민족자주, 애국애족의 립장에 서서 민족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 남조선에서 추진되고 있는 외세와의 <공조>는 온 겨레가 그것을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떨쳐 나설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세와의 <공조>를 분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6．15북남공동선언을 관철하는 길이 있다. 해내외동포들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외세와의 <공조>를 철저히 분쇄해 버려야 한다.

우리 민족은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높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분렬된 조국을 기어이 통일하고야 말것이다. (끝)

남북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 추진 중

기사출처 : http://www.tongilnews.com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2001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청년학생추진위원회(청년학생추진위원회)와 북한의 청년학생들이 공동으로 `평화통일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북한의 범민족연합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북측본부를 통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과 조선학생위원회, 범청학련 북측본부에게 남북 각각 1천명 규모의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청년.학생 평화통일대회(통일대회)`를 7월 20일에 평양에서 열자고 제안했다.

이에 북측 청년학생단체들은 통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7월 초 금강산에서 실무협의회를 갖자는 긍정적인 답변을 보냈고, 이왕이면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북측의 농업근로자동맹위원회(농근맹)가 실무회의를 하는데 같은 시기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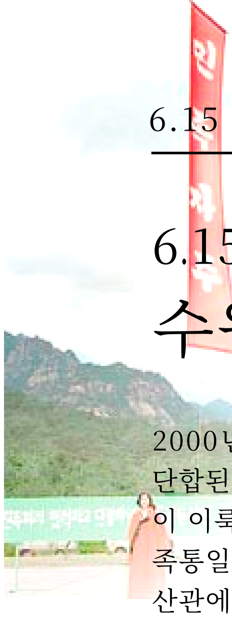
이밖에도 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는 의지를 모으는 방안으로 5만인 청년학생 선언운동을 현재 진행중이다.

김종수 한국청년연합회(KYC) 평화통일센터 사무국장은 이 선언운동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기원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며, 각 개인이 1천원의 선언기금을 모아 7월 20일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를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종수 사무국장은 8.15 민족공동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엽서 쓰기, 통일뱃지 달기 등을 실천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북한 청년학생단체들과 실무협의를 위해 전농과 일정을 논의 중이며, 따라서 통일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북한과 실무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01 - 07 - 02)

통일뉴스 2001 - 07 - 02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민족통일 촉진을 위한
수원지역 청년, 학생 통일대토론회보고

2000년 6월15일 민족분단 역사를 통일의 역사로 바로 잡은 6.15남북공동선언. 공동선언은 우리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지난날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가까운 시기에 조국의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통일이정표이다. 민족통일 촉진기간에 민족통일 대강령 6.15 남북공동선언을 수원지역 민족통일 운동 대강령으로 세우고 지지확산하기 위하여 수원지역 청년, 학생들이 지난 26일 아주대학교 다산관에 모여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민족통일 촉진을 위한 수원지역 청년, 학생 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단체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의지를 가지고 결의하였습니다.
인사말은 수원시민 통일한마당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님이 축시는 민족작가회의 고문 이기형 시인이 낭송하였습니다.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를 보고하신 남북공동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이신 윤한탁 선생님은 1948년 남. 북제단체 연석회의에서 주한미군철수를 합의하였으나 외세를 몰아내지 못하여 민족의 수난이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미국을 몰아내고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청년학생이 생활의 첫 자리에 두고 생활하고 투쟁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토론회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와 이행방향 지역 청년, 학생의 역할(통일사랑청년회회장: 피성협 새시대청년연대회장: 채희병 경기대: 이은애)과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의 역사적 성과와 과제(KYC공동대표: 고정호)를 두고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수원지역 청년, 학생은 민족통일촉진기간에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적극 나설 것이며 금강산 민족통일 대토론회의 성과와 과제를 널리 알려내고 지역의 유관 단체와 서로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연대, 연합을 모색하였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민족통일 촉진을 위한 수원지역 청년, 학생 통일대토론회에서 민족통일 촉진기간에 수원지역 모든 청년 · 학생은 6 · 15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투쟁에서 사상과 정견 신앙의 사이를 초월하여 청춘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합치고 수원지역의 청년학생들의 굳센 단결의 의지를 알리고 올해는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 엄숙히 선포하는 의의 깊은 통일 대토론회였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과 민족통일 촉진을 위한
수원지역 청년, 학생 통일대토론회 축하인사, 단체 및 개인

- 수원시민통일행사한마당 준비위원회위원장 박 우 석
- 민주주의 민족통일 수원연합 의장 이 상 호
- 경기 남부 민족민주 청년단체연합 의장 이 혁 희
-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한백의 집 고문 한 지 흔
- 군사평론가 김 삼 석
- 수원여성의 전화 박 은 경
- 수원 KYC 공동대표 박 영 철, 유 문 종
-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윤 한 탁
- 수원 나눔의 집 신부 임 영 인
- 과천 한백의 집 장기수 박 종 린
- 림?집 장기수 김 영 식, 김 동 섭
-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 진 옥
- 통일 애국열사 김양무 정신계승사업회 일동
-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이 호 헌

- 칼럼 -

통일의 3 원칙과 민족통일대토론회 공동보도문

자료출처 : http://www.tongilnews.com
김 남 식(통일뉴스 상임고문)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통일의 3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것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내용이 바로 7.4 공동성명의 통일의 3 원칙에 기초하고 그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7.4 공동성명의 통일의 3 원칙은 그것이 발표된 지 18 년만인 지난해에 비로소 6.15 공동선언으로 창조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지난 달 남북 및 해외의 민간 차원 대표들의 모임인 금강산 민족통일대토론회의 공동보도문에서 6.15 공동선언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선언`이며 21 세기 우리 민족이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통일의 `공동 강령, 공동 이정표`로 규정했던 것이다.

이러한 7.4 성명의 통일의 3 원칙 중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원칙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민족대단합(단결)을 이룩하는 문제라 하겠다. 민족대단합(단결)이 이룩되어야만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대단합(단결)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확실한 담보이며 근본적인 초석, 근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민족통일은 역사적 요구와 과제로 되어 있는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그 실현을 위한 주체는 바로 남북의 우리 민족인 것이다. 어느 한 특정 계급 또는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자주권 확보와 통일위업을 위해서는 그 주체가 남북한 온 민족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민족의 대단합(단결)이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의 대단합(단결)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민족의 자주권 확보와 통일위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기본적인 전제로 볼 수 있다.

또한 민족의 대단합(단결)을 실현하는 문제는 단일민족으로서의 존립과 발전의 기본 방식을 본래의 모습대로 복원하고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같은 단일민족으로서의 존재와 발전의 기본 방식을 우리가 자주적으로 만들어냈을 때, 우리 민족은 그러한 생존방식에 의해 더욱 단합이 되고 민족사를 자주적으로 창조 또는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틀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민족의 대단합(단결)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과제인 자주권 확보와 통일국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통일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이며 핵심적인 과제로 봐야 한다. 이러한 민족 대단합(단결)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자주의식으로 각성이 되어야 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족사상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 알다시피 우리 민족은 단군의 후손으로서 하나의 민족적 혈통을 잇고 언어의 공통성과 심리적 공통성을 지닌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공고한 집단으로 수천년을 이어져 왔다. 그 긴 역사 속에서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하나의 민족에는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온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민족이라는 틀 속에 사상과 제도,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수용되면서 서로의 갈등과 조화 속에서 민족사를 창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늘날 민족이 분열되어 남과 북이 각기 다른 사상과 제도가 형성되고 계급과 계층 구조가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민족대단합(단결)을 통해 하나의 민족적 생존방식으로 복원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민족의 틀속에 남북의 차이가 있는 사상과 제도,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은 포용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대단합(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문제에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는 민족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된 공동보도문에 관한 문제이다. 이 공동보도문에서는 6.15 공동선언이 민족통일의 공동강령, 공동이정표라고 강조하고 6.15 공동선언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과 민족자주의식을 지니고 민족의 존엄과 민족의 이익을 우선 순위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합(단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단체들과 인사들이 연대하고 연합할 것을, 그리고 남북간에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며 민족의 염원에 맞게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6.15 - 8.15 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에 다양한 운동과 행사들을 전개하여 금년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가 되기 위해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결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내용의 공동보도문은 남북한 온 민족이 6.15 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감에 있어서 당면한 과제이며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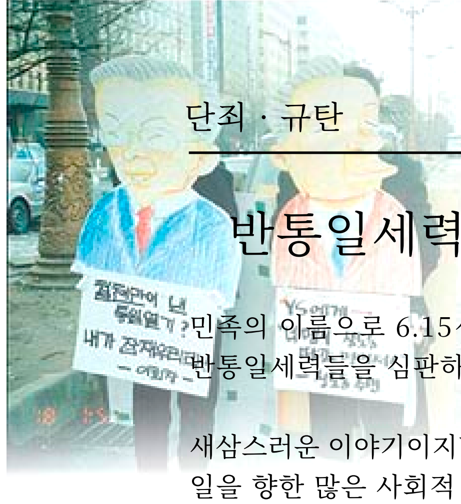
이러한 공동보도문의 내용과 정신은 민족자주의식을 가지고 민족대단합(단결)을 이룩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이 된다. 특히 민족대단합(단결)을 위한 각 단체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주력해야 할 점은 각계각층 또는 개별적인 인사들과의 연대와 연합의 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점이라 할 수가 있다. 그를 위한 형식과 방법은 각 단체들이 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6.15 공동선언은 민족선언인 동시에 통일강령이기 때문에 온 민족이 주체가 되는 운동이 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과거의 행적은 물론이며 현재에 처해 있는 입장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또한 신앙의 차이, 사상의 차이, 직업의 차이 등등을 초월해서 다같이 6.15 공동선언 실천에 주체가 되도록 연대와 연합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남북 또는 해외의 온 민족이 자주의식으로 단합이 형성되었을 때 그 힘과 위력은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것이다. 외세의 강권을 이겨내는 힘이 바로 민족대단합(단결)에 있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다.

그러한 의미에서 민족대토론회에서 밝힌 공동보도문은 6.15 공동선언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 당면한 과제와 지침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뉴스 2001 - 07 - 02



반통일세력에 대한 서울서부지역 통일연대 규탄 성명서

민족의 이름으로 6.15선언시대 역사의 재판장에서 반통일세력들을 심판하자!!

새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남북공동선언 발표이후 통일을 향한 많은 사회적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탄압받으며 어두운 그늘에서 힘겹게 투쟁을 해야만 했던 통일운동은 이제 당당하게 역사의 무대앞에서 합법적인 대중운동으로 펼쳐나가게 된 장이 열리게 되었다. 바야흐로 자주의 시대, 통일의 시대 전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에서도 이제 6.15선언 시대의 봄을 맞아 활짝 통일을 피우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수구세력들은 이런 역사의 봄을 거부한 채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을 되돌려 보려고 발악하는 세력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민족앞에, 역사앞에 저지른 죄과를 어떻게 해서든 모면해 보기위해서 필사적으로 공동선언 이행의 길을 막아나서고 있는 것이다.
해방이후 이들은 분단상황을 이용해서 외세에 아부하고, 민중을 수탈하며 남한사회의 정치,경제,군사,문화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면서 자신들만의 질서와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 그들만의 세계는 이제 그 밑바닥부터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김영삼,이회창과 한나라당,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그리고 주적론을 고수하는 자들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얼마전 "6.15 선언 1 주년을 맞아 레임덕에 빠져 김정일 방한에 매달리는 김대중씨는 정상회담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 며 또한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을 묵인하고 비호하고 있다고 하면서 김대중 정부에 대한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최근 김정일국방위원장 방한에 대해서도 태도를 바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발언을 거침없이 해댔다.

이회창총재와 한나라당도 공동선언이행의 길에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넘어들고 있다. 최근 이북상선이 영해로 들어온 것과 관련해서 이들은 이를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국방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그 이후 같은 영해에서 이북민간선박에 총격전이 벌어졌을 때엔 역시나 "잘한일"이라며 극찬하는 반통일적 행각을 일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도데체 무엇을 하자는 말인가? 전쟁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이들의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비리언론을 두둔하며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서도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자들이 제 1 야당이라는 간판으로 국민들과 민족을 우롱하며 이 사회에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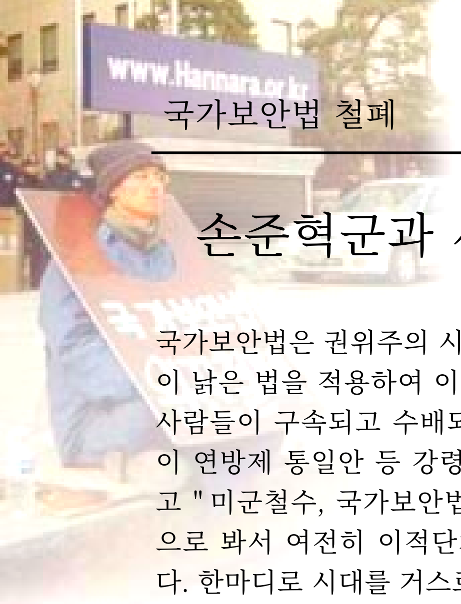
또한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각종 신문매체와 방송언론또한 구태의연한 민족대결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공동선언의의를 훼손시키며 화해와 협력분위기를 막아나서고 있다. 이들은 언론매체를 장악하고 새로운 시대와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나선다. 실상 이들을 파헤쳐보면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부정부패의 온상이었음을 우린 확인하였고 이들이 부르짖는 역사관과 사회정의가 결국 자가당착이며 자기모순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이들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한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들의 반통일적 행각에 엄중히 규탄하며 이들과의 전면적인 투쟁을 이남의 민족민주세력들에게 가슴 절절히 호소한다.

- 민족의 이름으로 반통일행각과 망발만 일삼는 김영삼을 분노로서 규탄한다!!
- 이회창과 한나라당은 6.15 남북공동선언 역행하는 모든 정치적 술수를 즉각 중단하며 민족과 역사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 부정부패의 온상, 썩은 언론은 이제 필요없다. 남북대결여론에 나팔수가 되어왔던 수구반통일 언론들을 이 사회에서 몰아내자!!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해 7 월 2 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통일연대 (준)
(서부지역 노점상연합,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서울서부지구 총학생회연합, 나라사랑청년회, 서부청년회(준), 서강청년동우회,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명지청년동우회, 우리마당)



손준혁군과 서울민주노동자회 회원들을 당장 석방하라

국가보안법은 권위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유산이다. 이 낡은 법을 적용하여 이 정부 들어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배되어 왔다. 검찰은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안 등 강령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 여전히 이적단체"라는 유권 해석을 했다. 한마디로 시대를 거스르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권 해석에 따라 민주시민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해온 한총련 소속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두고 있다.

지난 5월에는 4년여 동안 수배를 받아오던 전 한총련 의장 손준혁군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특히 연로하신 아버님이 담도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사경을 헤매면서 투병중임에도 손군을 아버님 곁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또 어머님은 심장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이시간 손군은 7 일 째 대구구치소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인륜도 천륜도 갈라놓는 법이라는 것을 새삼 일깨우고 있는 생생한 실례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더라고 적어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야한다. 김대중 정권은 나라를 좀먹어온 경제사범이나 선거사범은 대부분 불구속 또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하고 형량도 매우 가볍게 때리는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에는 민주노동운동과 통일운동을 벌여온 서울민주노동자회의 회원 9 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합법적인 노조의 조합활동에 참여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활동한 사람들이다.
정권은 민주노총과 전쟁을 선포하고 조직을 무너뜨리겠다는 허황된 발상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노회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해서 이적단체 혐의를 씌우는 것은 노동운동과 김대중 정권 반대 투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민주당 총재 김대중씨는 국가보안법을 현재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적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사실과 다르지만 아무튼 적용하지 않고 있다던 국가보안법을 다시 적용하여 군사독재보다 더한 공안탄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하나만 보아도 국가보안법이 정권 보안법임이 틀림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수십차례 공약했다. 정권의 임기가 1 년 반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도 노태우 정권 때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현정권은 보통 거짓말쟁이 정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6 월 열기로 한 보안법 토론회도 가뭄을 이유로 연기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당론을 정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북한의 영해침범을 무력으로 응징해야 한다"느니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탄압"이니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이니 하면서 끊임없이 정국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냉전적 유산인 국가보안법 개폐 작업을 회피하는 한나라당은 이미 근대정당으로서 사형선고를 받은 정파이다.

이처럼 정치권이 묵시적으로 담합하여 국회에서 차일피일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을 미룸으로써 계속해서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민 스스로가 직접 나서지 않고는 절대 폐지될 수가 없는 법이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권, 자주적 통일을 두려워하는 수구세력에게 무엇을 바란다는 것이 부질없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한 사람의 작은 힘이 모이고 또 모여서 큰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 나갈 때만 국가보안법은 없어질 것이다.

2001. 7. 3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준)

뉴 스

주체 90, 6월 24일

서울시 서대문구에 살고 있는 장모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열렬히 흠모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동료들과 함께 역사적인 평양상봉 장면들을 수록한 비디오를 시청한 자리에서 그는 보면 볼수록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에 대한 우리 민중의 칭송열기를 더욱 부풀게 하는 장면들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이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그때 우리 민중이 터쳐올린 칭송의 열도를 잊을 수 없다. TV를 통해 그분의 모습과 육성을 직접 보고 들은 우리 민중의 흠모심은 온 천지를 진감시키지 않았던가. 태양과 같이 환한 영상, 유연하면서도 당당한 모습, 온 천지를 진감시키는 듯한 우렁우렁하신 음성, 인류를 매혹시키는 위인적 풍모, 정말 위대한 영도자로서의 위엄이 역력히 비껴있다.

그는 계속해서 **김정일**영도자님은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통일의 구성이시다. 그분을 우러러 올리는 우리 민중의 칭송의 목소리는 민족통일의 구성께 드리는 감사와 신뢰의 경하이다. **김정일**영도자님을 모셔 민족의 창창한 내일이 기약돼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체 90, 6월 25일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5일 6.15 남북공동선언지지 마다가스까르 위원회의 주최로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는 마다가스까르 조선친선 및 연대성 위원장, 마다가스까르 혁명적 근로자직업연맹, 마다가스까르 노조전선, 마다가스까르 사회주의노조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지지 마다가스까르 위원회 서기장인 마다가스까르 조선친선 및 연대성 위원회 서기장이 6.15 남북공동선언과 평양에서 진행된 정당단체 합동회의 결정에 지지했습니다. 이어 그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 공동선언이 **김정일**각하의 민족자주정치와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하고 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노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김정일**영도자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 공산주의자들의 **김일성**동지 저작연구소조에서도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남북공동선언 1돌에 즈음해 방글라데시 인민대표위원장이 12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최근 미국과 남측군사당국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 고 합동군사훈련을 빈번히 벌여놓으면서 정세를 대결에로 몰아가고 있다고 폭로하고 도발적인 반통일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당국이 6.25전쟁 51주년 기념식이라는 것을 벌여놓고 이북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해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보도된 것처럼 25일 이한동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당국자들은 참전사병 등 7,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6.25북침전쟁을 미화분식하며 북을 헐뜯는 행위를 감행했습니다.

이한동총리는 기념사에서 강력한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한치의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는 기조위에서 남북교류와 협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북이 스스로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북을 자극하는 망발을 늘어놨습니다.

또 재향군인회 회장은 북은 한반도 무력적화야욕을 포기하라느니 뭐니하고 떠들었고 기념식에 이어 열린 이른바 자유평화수호범국민 안보궐기대회에서는 북이 6.25전쟁의 죄가를 인정하고 사죄해야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6.25전쟁이 미국과 그 주구들이 일으킨 북침전쟁이었다는 것은 당시 전범자들의 증언과 자료들에 의해 여실히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이같은 행

사를 벌인 것은 전쟁의 책임을 북에 전가하고 미국과 그 주구들이 감행한 사상유례없는 만행을 미화분식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국이 6.25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노근리양민대학살을 비롯해 인간살육만행을 감행했으며 도시와 농촌을 초토화한 미침략자들의 야수적 만행을 고발규탄할 대신 오히려 남침을 운운한 것은 민족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 주년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해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갖는 등 통일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행사를 벌인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당국이 진정으로 6.15 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입장이라면 6.25 전쟁기념식이라는 행사를 벌여놓고 북을 자극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한데 대해 응분의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국제고통련이 지난 20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영화감상회를 진행했습니다.

감상회는 국제고통련 사무국장을 비롯해 동포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북영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과 상봉, 주체89(2000)년 6 월 13 일 -15 일 을 관람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5 일 우즈베키스탄고통련 성원들과 동포들이 영화감상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이북정당, 단체합동회의 결성과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시리아 공산당, 시리아에 있는 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 ****, 팔레스타인 인민투쟁 ***, 레바논 공산당,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민족 ****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들은 **김정일**각하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통일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가시며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민족의 단합, ***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중의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성명들은 6.15 남북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동성명들은 남측 당국이 이북을 반대하는 합동군사훈련을 그만두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공동선언의 정신대로 동족끼리 공조하고 나갈 데 ****미국이 한반도의 남북관계에 간섭하지 말고 공동선언 이행에 제동을 걸지말며 남에서 미군을 즉각 철수시킬데 관해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들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에 굳은 연대를 표시했습니다.

주체 90, 6월 27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 돌에 즈음해 루마니아근로당 서기장, 이집트민족민주당 서기장, 터키노동당 서기장, 네덜란드 신공산당중앙위원회, 불가리아공산당(마르크스주의자) 집행이사회 위원장, 시리아 통일사회주의당 서기장, 벨기에 노동당위원장, 헝가리노동당 위원장, 파키스탄사회주의당 위원장이 각각 연대전문을 드렸습니다.

전문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발표 1 돌에 즈음해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렸습니다.

전문들은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북관계가 급격히 발전한데 언급하고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정책과 주한미군영구주둔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문들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남북전체 조선민중이 단합된 힘으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러시아연방공산당 연해변강위원회, 러시아인민애국연맹 연해변강지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러시아학자연맹 연해변강지부, 노동집단동맹, 소련군관동맹, 전러여성동맹이 6 월 14 일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전체 조선민중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라를 통일된 강성대국으로 건설하시려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의지에 의해

마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지난해에 채택된 남북공동선언이 조선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고 나라의 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발전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중의 희망과 노력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바라며 이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 90, 6월 28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기니공화국 대통령이 연대성 전문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전문은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문은 위대한 조선민중이 통일된 강성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 넓은 길을 열어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기니정부의 지지를 재확언하면서 **김정일**영도자님께 충심으로 되는 축원과 숭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부위원장인 터키노동당 위원장이 15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김일성**주석님께서 근 반세기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오신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투쟁은 그분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나가고 계시는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2000년 6월 15일 중대한 전환적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한반도에서의 극적인 사태발전을 가로막고 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더욱더 궁지에 빠져들고 있데 언급하고 조선민중이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군의 이남강점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평양에서 진행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이북의 정당단체합동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연대성 집회가 8일과 9일 마다가스까르 사회주의진보당청사, 탄자니아 다레스살람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들에는 마다가스까르 사회주의진보당 전국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성원들과 당원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들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이북정당단체합동회의 결정이 낭독된 다음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들은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마련된 평양상봉과 남북공동선언발표는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평화위업에 크게 기여한 역사적인 사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사들은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실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미국이 대북적대시정책을 버리고 이남에서 미군을 철수하며 한반도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체 90, 6월 29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감행해 남북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정원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원 : 이른바 유사시 북의 잠수함 침투와 해상침공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동해상에서 강행됐습니다.

해군 1함대사령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서는 최신 한국형 구축함을 비롯해 20여척의 함정과 잠수함, 해상항공기 등이 참가해 입체적인 작전을 펼쳐 전쟁준비태세를 갖추겠다고 합니다. 군당국이 지난 17일과 18일,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 남태령일대, 경기도 양평일대에서 전차와 차량이동훈련을 벌인데 이어 동해에서 대규모 해상기동훈련을

강행한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어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당국의 이같은 전쟁연습은 최근 첨단 전쟁장비 도입책동과 맞물려 강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당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엠케이 41 미사일수직발사체계를 끌어들여 한국형 구축함에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상에서 초계활동을 강화하기 이해서 해상 초계기 8 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하는 등 최첨단 전쟁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준비해 육해공군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6.15 남북공동선언발표 1 주년을 계기로 온 겨레가 남북간의 화해, 협력과 통일에로의 힘찬 진군을 가속화하고 있는때 군당국이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6.15 공동선언에 배치될 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하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남북국방장관회담정신에 위배되는 민족반역행위인 것입니다.

당국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압살책동에 가세하는 이같은 무모한 전쟁연습소동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회창이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의 혐의가 짙은 구호를 부착한 이동차량을 이용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조사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용학대변인은 이회창이 24 일 중부전선에 군부대를 방문하면서 버스 양쪽에 선택 한나라당 이라는 구호를 부착했다면서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에 즈음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이 6.15 남북공동선언 1 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라는 주제로 6 월 17 일 *** 에서 지역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집회에는 한통련의장, 부의장을 비롯해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인민주여성회, 조국통일재일학생협의회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집회에서는 박종호부의장의 발언에 이어 곽동의의장이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6.15공동선언이 가지는 의의에 언급하고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보안법을 철폐하고 미군을 철수시켜 반통일세력을 배격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민족의 단결된 힘이라면서 동포들은 자주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한통련은 오사카, 교토, 고베 등 일본 각지에서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1 돌에 즈음해 유고슬라비아 공산당 서기장이 13 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는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김정일**영도자님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통일정책으로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담화는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중의 통일노력에 전적인 지지를 재확언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과 남측 당국이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입장에 서서 선언이행에 성실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주체 90, 6 월 30 일

6 월 28 일 오전 10 시 반쯤 대구지방법원 청사내에서 영남대학교 수학과 4 학년 정모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의장 손준혁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 등을 요구하는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정군은 법정동 승강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간 뒤 6.15 공동선언이행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철폐,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정치수배자 농촌봉사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여장을 뿌리고 10 여분간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정군을 강제연행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